

이슈

2

2020년 4월 17·18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제3312호

봄슬레이 이용 총감독도 국회 입성

▶1면에서 이어집니다



이용 총감독

이번 도전 무대는 정치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은 올 1월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계 인사로 그를 영입했다. 그는 “국민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다”며 “코트에서 쓰러진 동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던 고단한 국민의 손을 잡겠다”는 출사표를 냈다.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를 택했다. 전략공천을 받은 곳이 광명갑이다. “광명을 스포츠·레저·문화·예술 인프라가 조성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총선에 뛰어든 그는 스포츠에서처럼 마침내 또 한번의 드라마를 썼다. 당선 후 그는 “그간 제가 흘린 땀방울이 정직하게 금메달로 드러났듯이 국회와 광명시에서도 제가 흘린 땀방울을 통해 광명발전의 성과를 가져오겠습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을 지도했던 이용 전 총감독(42)도 금메달을 달았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나선 이 전 감독은 후보 18번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평창올림픽에서 스켈레톤 윤성빈의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봅슬레이 4인승의 공동 은메달 등 한국동계종목이 최고의 성적을 내는 데 큰 힘을 보탰다. 체육학 박사이자 스포츠 정책전문가인 그는 현재 봅슬레이·스켈레톤 국제연맹 스포츠 위원이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인들이 날았다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와 배현진·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왼쪽부터)가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당선된 뒤 16일 환하게 웃고 있다. 맨 오른쪽 사진은 이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는 김은혜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의 11일 선거운동 모습.

‘총선 킬러’로 뜬 전직 아나운서들

고민정·배현진·한준호·김은혜 등 지상파 아나운서·기자 출신들 선전형 유세 팔 걷은 유오성 당선 웃음 남편 뒷바라지 심은하는 낙선 눈물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전직 방송사 아나운서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또 후보를 가족으로 둔 연예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고민정, 배현진, 한준호 등 지상파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들이 각기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KBS 아나운서 및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광진을 선거구에서 전 서울시장인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고 당선자는 2017년 KBS를 퇴사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해 미디어본부 대변인 역할을 맡았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송파율도)도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2010년부터 7년 동안 '뉴스데스크'를 진행했다. 이후 2018년 3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정치 입문했다. 역시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고양을), 전 KBS 아나운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중구성동을)도 격전지에서 각각 승리했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성남분당갑)

도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이들의 가족인 연예인들에게도 시선을 쏠린다. 일부는 가족이 당선하는 기쁨을 누렸고, 또 다른 이들은 낙선의 아쉬움을 삼켰다.

연기자 유오성의 형인 강원 흥천·형성·영월·평창의 유상범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다. 유오성은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형을 도와 유세현장에 나가 지지를 호소했다. 래퍼 노엘의 아버지인 장제원 미래통합당 후보도 당선됐다.

반면 심은하는 남편 지상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상대인 박성준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는 상황을 맞았다. 유세 현장을 누비며 남편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에 나섰지만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연기자 이하늬의 사

촌지간인 문석균 무소속 후보와 윤세인의 아버지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낙선했다. 문 후보는 문화상 국회의장의 아들이다.

한편 이번 총선 개표방송을 진행한 각 방송사들의 시청률 성적도 엇갈렸다. 1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각 방송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15일 오후 6~7시 시청률은 KBS가 11.7%로 1위를 차지했다. MBC 4.9%, SBS 3.8%였다.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예측은 빗나갔다. KBS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의석을 모두 155~178석, MBC는 153~170석, SBS는 153~177석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180석이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경비행기 추락사’ 로이 할러데이…사고 당시 마약·곡예운전

2019년 명예의 전당 입성 MLB 스타 ESPN “판단 잃을 정도 모르핀 검출”

2017년 11월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진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투수 로이 할러데이(1977~2017)가 사고 당시 마약류를 복용하고 곡예운전을 즐긴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16일(한



로이 할러데이

다”고 보도했다.

국시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사고 당시 할러데이가 위험한 조종을 반복했고, 체내에서 고농도의 암페타민 등도 검출됐

NTSB는 “할러데이가 사고 1개월 전 구입한 2인승 경비행기 아이콘 A5를 타고 플로리다 해안 상공에서 시속 85마일(약 137km)의 속도로 해수면 5피트(약 1.5m) 이내의 높이까지 하강을 반복했다”며 “체내에서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의 고농도 모르핀과 항우울제, 치료에 사용되는 양의 10배에 해당하는 암페타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할러데이는 사고 1주일 전 자신

의 소셜미디어(SNS)에 “아이콘 A5로 해상을 비행하니 전투기를 조종하는 기분이었다”고 올렸는데, 이는 곡예운전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할러데이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이던 2003년과 2009년 2차례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수상했고, 필라델피아 필리스이적 첫해인 2010시즌에는 메이저리그 역대 20번째 퍼펙트게임을 달성하기도 했다. 16시즌을 뛰며 총 3차례 시즌 20승 이상을 거두는 등 통산 203승의 업적을 남겼다. 사망 2년 뒤인 2019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35% 초특가 파격할인

솔밥대통령 FLAT 200대 한정!

솔밥대통령 FLAT 하나로 압력·비압력 취사부터 1~5인솔·스텐솔·통주물들솔·무쇠가마솔·방짜유기솔까지 전천후!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8구, 9구, 10구, 15구, 16구, 20구 외 맞춤 제작 가능

내 마음대로 농도·뜸·시간 조절 가능!

IH-전기솔밥기계 판매 1위 元租 「솔밥대통령」 FLAT, 스테인리스 하우스 & 정통 방짜유기솔 출시 기념

국내 유일 원터치

내부안전잠금장치
압력이 남아있으면 절대 열리지 않는 압력무경

5분완성
압력 무쇠가마솔
약 800g

6분완성
압력 통주물들솔
약 850g

7분완성
압력 통3중스텐솔
약 580g

솔밥대통령 전용 정통 방짜유기솔 출시

압력취사가 되는 방짜유기솔

국내 최초 GOLD 압력무경

☎ 상담·시연문의 **1833-9565 · 1661-9565** 전국 어디든 무료 출장 시연 달려갑니다!

NAVER·D2M

솔밥대통령 / 박인성솔밥기